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오 28, 19)
--	--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한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0/20(일) 연중 제 29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10/22(화) 연중 제 29 주간 화요일 (본당 20:00)
 ▶10/27(일) 연중 제 30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사목회의

▶10/25(금) 20:00 하상실

◎교중 미사 시간 변경 안내

11 월 첫 주(썸머 타임 해제일)부터 주일 미사 시간이
11:30 에서 11:00 로 변경됩니다.

◎위령의 달

▶위령미사(11/2) 봉헌하실 분은 전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묘지방문
일시:11/2(토) 11:00 위령미사 후 본당 신부님과 묘지 방문
장소: Our Lady of the Angels Catholic Cemetery
 681 Mud St E, Stoney Creek, ON L8J 3B8

◎교구청 특별 헌금

10/20(일) 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교구청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구합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주일학교 – 주일학교 교사를 구합니다. 문의: 대표교사 박혜영 수산나

◎ 예비자 교리 모집

11 월부터 시작하는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선교 분과장 김한옥 에릭

◎꽃동네 피정 안내

(문의: 이태은 야고보 수녀님(647-808-3989))
▶피정 (2 인 1 실)
 기간: 10/26(토) ~ 10/27(일) 1 박 2 일
 마감: 10/23(수) 참가비: \$125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텀블러, 필기도구, 노트, 묵주, 겨울 외투, 성서

◎헌금 봉투

헌금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하태성 베드로 재정분과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정기 사목회의 일정 안내- 10/27(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당일친교식사 취소)
 ▶금일 간식은 김명숙 헬레나 자매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0 월 공소 세례 축일자 2 명 (10/15 김윤정 데레사, 10/17 이찬희 이나시오)

단체 소식

구역모임(소식)

1 구역 10/20 일 15 시 대철실
 2 구역 10/26 토 12:30 조광학 형제님 맥
 3 구역 10/27 일 12 시 친교 식사 후 친교실
 4 구역 10/26 토 18 시 황창환 형제님 맥
 6 구역 10/26 토 16 시 신명철 형제님 맥
 7 구역 10/26 토 17:30 정묘순 자매님 맥

친교 식사

10/20: 1 구역(공나울 황태국, 무료(신부님 한 턱))
 10/27: 3 구역 11/3:4 구역 11/10: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119 명)			
주일헌금	\$1130	교무금	\$28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0

목주 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운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0 월 본당 세례 축일자 (36 명)

10/ 1 데레사(김보연, 이현정, 손소영, 이제순)
 10/ 2 안젤라(김민신, 손제원, 김민정)
 10/ 4 프란치스코 (이상우, 박희송, 유경현, 신상해,신정훈,이창전)
 10/ 5 플로라(김부경, 최다혜, 박인화)
 10/ 6 프란치스코(이동규), 마리아 프란체스카(황윤주)
 10/ 7 유스티나(이성란), 로사리오(나희진)
 10/ 9 사라(박선미, 안은숙), 10/10 다니엘(이지훈)
 10/15 데레사(이자영), 소화데레사(도금자)
 10/17 루시아(김순례) 10/18 루카(정종만, 한우생)
 10/24 세실리아(배영희, 이옥화)
 10/27 플로렌시오(최광락)
 10/28 시몬(김상표, 도재환, 신철호)
 아나스타시아(원숙미)
 10/30 제노비아(강서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0/20	박혜영 수산나	이준규 안드레아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신낙홍 마리아 2 독서: 권희진 요안나	이인선 켈마 박규혜 카타리나
10/27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다희 보나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신낙홍 마리아 권희진 요안나

주님과의 삶의 여정

연양 성야고보 성당 주임
전재완 안드레아 신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는 점점 아기가 되어간다. 이제 백 세를 넘어서 두 살이 넘었다. 옆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다. 방실 옷을 때는 아기와 같다. 시골에 내려갔을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 세 개를 훌쩍 빼갔다는 것이다. 정말 어이없어하신다. 살다 살다 보니 무슨 이런 해괴한 일이 있느냐며 어처구니없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웃었다. 사실 그 도둑은 어머니를 지금껏 극진히 돌보고 있는 나의 여동생이다. 어머니를 씻겨도 몸에서 이상한 듯한 냄새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 반지 속에 끼여 있는 이물질의 냄새였다. 반지 없어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해맑게 웃고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기를 기도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무엇에 홀려서 사는 것도 아닌데, 늘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분모가 아닌가 싶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주님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굳은 약속이다.

간혹 신자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이참에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 신앙생활을 그만하겠다는 말이나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통치를 이참에 벗어나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달리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겉으로 보면 삶이 너무나 뻑뻑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느님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적 필요를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신앙인으로서 경솔한 이러한 삶의 선택은 거대한 고통이라는 소용돌이에 또다시 빠져들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 속에서 또 깨어지고 망가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모습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눈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어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갇혀 어제와 오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씻어도 씻어도 냄새가 나는 금반지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29 주일

(2024. 10. 20.)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2,1-5

화답송 시편 98(97),1,2-3 ㄱ-3 ㄷ=4.5-6(◎ 2 참조 또는 3 ㄷ=)



후렴.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10,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16-20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8,16-20